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2.05



라오스: 킴박에 정면으로 맞서다

그들의 바보같은 노력
비이와 쑤의 이야기

불법적인 복음을 가르치다
부파 이야기

폴리 목사 부부가 전하는 글

이번 소식지에는 ‘인내’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할지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한몸을 이루는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의 온전한 헌신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보여줍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은 기독교인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고후 5:20} 참조로서 소명을 확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오스의 101세 노인 분센Bounsaen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래 QR코드를 통해 그의 놀라운 이야기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이Vee와 쑤Sun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 중인 그들의 목소리만 들으면 두 사람을 십대 소녀로 착각할지도 모른다. 종종 돌발적인 웃음으로 대화가 중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라오스의 소수 민족인 크무족Khmu 출신의 두 사람은 이미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늙어서야 그리스도를 알게 되다니 안타까운 일이지요”라고 비이가 말했다.

비이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라오스의 마을 사람들은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았었다. 비이는 자신의 나이가 70대 중후반 정도라고 생각한다. 쑤는 50대 중반으로 조금 더 어리지만 정확한 나이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내가 아직 예수가 되지는 않았단 건 알아요.” 쑤이 웃으며 말했다.

비이는 과부였고, 오랜 세월 앓던 병으로 인해 좌절하던 중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전통적인 민간요법도 써보고 무당을 찾아가거나 조상들에게 기도도 올려봤지만, 그 무엇으로도 건강은 호전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의 양아들이나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의 이웃들도 모두 그녀를 돕거나 돌봐주려 하지 않았다.

더는 죽은 것처럼 살지 않겠다

이웃이었던 쑤는 비이가 가난한 과부인데도 새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쑤는 일곱 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전 남편들은 모두 약물 중독자거나 그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자들뿐이었고 현재 남편 역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래서 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소망과 치유에 관



해 이야기했을 때 쑤는 주님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즉시 남편과 아이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나 쑤의 남편은 이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기독교인들이 마약 중독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다.

비이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전에 온갖 영들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것들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쑤 역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걸어서 두 시간이나 걸리는 다른 마을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다.

기독교가 문제다

비이와 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자, 마을 지도자들은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를 위협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고립될 거라고 말했지요. 난 신경쓰지 않았어요.” 쑤이 말했다.

비이에게 새 종교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소용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부 당국은 그녀가 입양한 아들로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그에게 어머니가 ‘외국’ 종교를 버리게 하라고 지시했다. 아들이 선택한 잔인한 방법에는 늙은 어머니를 구타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번은 부엌에 있는데 아들이



나를 발로 차더라고요. 등이 시멘트 바닥에 아주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들은 그런 나를 축구공 차듯이 걷어차었어요. 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했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핍박이 오면,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쑨 역시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들은 쑨에게 그녀가 믿는 서양 종교는 라오스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를 체포하겠다고 협박했지요. 계속 협박만 했어요. 마침내 내가 말했지요. ‘자, 나를 체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라고요.” 결국 그들은 계속 예수를 믿는다면 마을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비이와 쑨은 마을사무소로 소환되었다. 두 사람을 마을에서 추방하기 위해 관할 경찰이 그곳에 와 있었다. “당신들이 좋은 사람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을 지도자들은 말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느끼며 쑨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들도 원하는대로 말할 수 있지. 죽게 된다면, 난 기꺼이 죽겠어.”

그리고 비이는 특유의 투지로 당국자들을 묵살했다. 비이는 이렇게 비꼬아 말했다. “왜 자꾸 이런 일로 괴롭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눈도 없어요? 나는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기도했고, 기독교인들도 찾아와 나를 위해 기도해주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치유받았어요. 나를 치유해주신 분을 예배하러 가고 그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에 의해 결국 두 여성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마을을 떠나야 했다.

“그들이 내게 한 짓은 정말 가혹했지요. 하지만 난 낙담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핍박을 겪으면서 나는 다른 성도들과 더 많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쑨이 말했다.

“핍박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요.” 비이가 덧붙였다.

핍박에 정면으로 맞서다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비이와 쑨은 알지 못한다. 자신들의 발에 갈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은 다른 이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에 의존해 살고 있다.

두 여성 모두 아들이나 남편, 이웃과 마을 지도자 등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했던 이들과 화해했다. “솔직히 우린 그들이 우리에게 한 일들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증오나 원한을 품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쑨이 말했다.

그러자 비이가 동의하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어떤 증오심도 갖지 않게 해주셨거든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면 모두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해줄 것이라고 순교자의 소리 동역자가 말해주자, 비이가 말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들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쑨이 말했다. “우리 둘 다 또 핍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핍박이 온다면 우리는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쑨과 비이는 다시금 웃었다.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바보같은’ 노력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이다.

비이가 기독교인이 된 후,
주변 사람들 모두 그녀가 새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



소식지(기도달력) 신청 방법

1. 온라인(vomkorea.com) 신청
2. 사무실(02-2065-0703)로 전화하여 신청
3. 문자(010-3151-2065)로 신청: 수령자 주소와 성명을 보내주세요.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김교신홍]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7길 15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한국 기독교 재정투명성협회
1호 인증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2022년 5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오만 고립되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담대함과 용기를 얻도록	2 아제르바이잔 성도들이 현대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복음을 전하도록	3 라오스 새신자들이 훈련받고 힘과 격려를 얻도록	4 타지키스탄 믿음 때문에 목사인 남편이 순교한 타마라 사모의 건강을 위해	5 모로코 모로코 전역에서 성경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6 방글라데시 무슬림 전도를 위해 훈련받는 최전방 사역자 50명을 위해	7 예멘 수감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힘과 용기를 얻도록
8 터키 믿음 때문에 몇 년동안 딸을 보지 못한 목회자를 위해	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이 증가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10 카메룬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난민이 된 북부 기독교인들을 위해	11 미얀마 미얀마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위해	12 카자흐스탄 성도들을 훈련하고 격려하기 위한 기독교 행사를 위해	13 콜롬비아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 사역자들을 위해	14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이 폐지되고 종교의 자유가 넘쳐나도록
15 이라크 쿠르드족 캠프로 돌아오는 국내 기독교인 난민 가족을 위해	16 소말리아 기독교인에 대한 정부 지도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도록	17 인도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게 가혹하게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18 에티오피아 기독교 적대 지역 최전방 사역자들의 안전과 담대함을 위해	19 중국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20 이란 평생 이슬람 억압 아래 살아 온 청년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돌보도록	21 탄자니아 억울하게 고소당해 소송 중인 잔지바르섬 목회자들을 위해
22 쿠바 행정당국에 의해 폐쇄되었던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도록	23 지부티 이웃 국가 성도들이 이 나라로 피신하게 정치적 안정을 주시기를	24 말레이시아 미디어 사역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복음을 듣도록	25 케냐 테러집단의 표적이 되고 있는 북동부 기독교인들을 위해	26 에리트레아 장기 수감중인 기독교인과 그 가족들에게 힘과 인내를 주시도록	27 북한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오디오성경을 듣는 기독교인 여성을 위해	28 필리핀 최근 세례받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29 몰디브 최전방 사역자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30 시리아 가족들은 생계가 어려워 도망치고, 홀로 남은 샤디 목사를 위해	31 리비아 리비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라오스
집이 불타버린
과부를
돌보는 사역에
동참하세요

라오스 전역의 수많은 작은 마을에서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폭력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독교인의 집에 불을 지르거나 기독교인들을 마을에서 추방하고 있습니다.

열두 명의 자녀를 둔 잉 Ying에게도 올해 1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잉의 가족은 2년 전, 마을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잉의 남편은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죽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기독교식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을 당국자들은 불교식 장례를 치르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남편의 시신을 빼앗아 태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잉의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다행히 다른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남편의 시신을 수습해 정글에서 기독교식 장례를 치를 수 있었지만, 잉의 집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잉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잉과 아홉 명의 어린 자녀들은 다른 기독교인 가정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잉과 그 자녀들을 돌보는 순교자의 소리 및 라오스 현지 성도들의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우리는 잉에게 음식이나 의복 등의 생필품과 더불어 새 집을 지을 건축 자재와 인건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잉의 상황이 해결되면, 핍박으로 인해 집을 잃은 다른 라오스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허락되는 한 모든 곳에서, 라오스 기독교인들이 마을의 다른 주민들과 자신들을 핍박한 사람들에게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잉의 가족을 비롯한 라오스 형제자매를 돕기 원하십니까? 이 사역을 위한 헌금은 5월 31일까지 모금됩니다. 동역을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 VOM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프로젝트 후원 항목에서 '라오스'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과 함께 ‘라오스’ 라고 표기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불법적인 복음으로 가르치다

2020년 2월 어느 일요일 아침, 18세였던 부파Boupha는 아이들과 놀이를 하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들이닥쳐 수업을 중지시켰다.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무서워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던 터라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부파가 말했다.

경찰과 관련해 직접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었지만, 라오스 기독교인들이 때때로 핍박을 당하고 있으며 라오스의 공산주의 정권이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교회의 기독교 활동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은 부파도 잘 알고 있었다.

2019년, 부파는 순교자의 소리가 지원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자료와 제자 훈련 도구들을 제공해 그녀가 보다 효과적으로 어린이 사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훈련 과정을 마친 뒤, 부파는 그곳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로 복귀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바로 그날, 경찰이 찾아온 것이었다.

압박 속에서도 열정으로

부파와 아이들이 즐겁게 주일학교 아침 수업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경찰관 세 명이 찾아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부파가 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자료들은 어디에서 구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했다. 경찰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법에 위반되는 걸 모르나?”라고 위협적으로 물었다.

무섭고 떨렸지만, 부파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지혜를 주세요. 저들이 뭐라고 묻든지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부파는 경찰의 질문에 정중하게 답변했고, 경찰은 추가 심문을 위해 그녀를 지역 경찰서로 연행해갔다. 경찰들은 그녀가 어디에서 교재를 구했는지, 가르치는 데 대한 보수는 누가 주고 있는지 반복해서 물었다. 부파는 스스로 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사실 그

대로 주장했다. 경찰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해 질문하면, 부파는 용감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어떻게 알지?” 경찰이 물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 또한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경찰은 심문을 더 이어가는 대신 부파의 교재들을 압수했다. 부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찰들에게 그 자료들을 읽어보라고 권했다. 자료를 통해 알게 될 내용들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이다.

경찰은 부파에게 그 자료들의 내용을 더는 가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당신들이 자료를 이미 다 가져갔는데, 앞으로 다신 가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파가 대답했다. 경찰은 자료 없이는 그녀가 더 가르치진 못할 것이란 사실에 만족하며 부파를 풀어주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굴욕

부파는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겠다고 더 큰 결의를 다지며 조사실을 나섰다.

“경찰에 끌려가 심문을 받은 후, 내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더 굳게 붙들게 되었지요. 경찰은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면 나를 체포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두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난 기꺼이 체포당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부파는 청소년 성경 공부와 예배를 이끌며 교회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회계 관련 교육을 수료한 후 파트타임

으로 일도 하고 있다. 때로 동료들이 그녀를 조롱하거나 비판하지만, 부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위해 굴욕을 당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전교생이 다 나를 놀리곤 했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었지요. 그 일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부파는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시 핍박이 온대도 기꺼이 마음을 열어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핍박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세요. 그분이 항상 당신 곁에 계시며, 절대 당신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부파는 말했다.



▲ 라오스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성경적인 제자로 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현장소식

네팔_ 노예로 팔려가 그리스도께 구원받다



네팔의 소니 코이랄라Soni Koirala가 고모에 의해 노예로 팔려 매춘부가 된 것은 그녀가 열일곱 살 때 일이었다. 현재 마흔여덟 살인 소니는 이렇게 말했다. “지옥과 같은 삶이었지요. 탈출도 여러 번 시도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내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망 따윈 버렸었지요.” 그러던 중 한 기독교인 여성이 소니를 만나 그녀가 네팔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 여성은 소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 “그녀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전해주었어요. 당시 난 나 자신을 증오했어요. 매춘부인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듣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상에 잠겨 소니가 말했다.

소니는 그리스도를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나 가족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가족들은 소니의 과거와 새로 갖게 된 그리스도 신앙을 이유로 그녀를 거부했다. 심지어 가족들은 소니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다리가 부러지게 했다. 가족들은 소니가 그리스도 신앙을 포기해야만 함께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가족을 떠나 자신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기독교인 여성에게 돌아가기로 했다. 그 기독교인은 머물 곳을 제공할 수 있는 한 목회자를 연결시켜주었다. 소니의 상황을 알게 된 순교자의 소리는 그녀가 부상에서 회복되는 동안 생필품을 지원해주었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기도 하니까요.” 소니가 말했다.

에티오피아_ 큰 희생으로 널리 전파된 복음

마리암Mariam은 어린 나이에 기독교인이 된 후, 가족 전체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현재 30대 초반이 된 마리암은 샤샤메네Shashamene에서 양품점을 운영하면서 옷가지 등을 팔아 부모와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

2020년,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인종과 종교 갈등으로 야기된 폭력 사태로 인해 마리암의 양품점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사업체들이 파괴되었다. 생계 수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암은 믿음을 굳게 지켰다. “재산을 모두 잃었지만 믿음 안에서 난 더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한 짓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었어요. 기도생활도 더 굳건해졌습니다.” 마리암은 말했다.

마리암은 순교자의 소리의 지원으로 다시 사업을 일으켰다. 한 순교자의 소리 최전방 사역자는 이렇게 전했다. “마리암이 다시 가게를 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도와준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암은 ‘내 후원자는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도우심에 대해 증거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성을 전하는 한국 VOM 도서

신실한 증인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책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지하교회를 심으라』
『지하교회로 살라』

리처드 웹브란트/에릭 폴리 지음
각 10,000원

전 세계 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21 - 콧트 순교자들의
명에 다녀오다」
10,000원



「이슬람이나
죽음이나」
10,000원



「꿈과 환상」
10,000원



「IS와 감옥
안에서」
10,000원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의 저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000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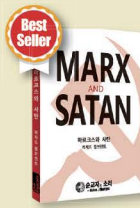


「웹브란트」
15,000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5,000원

5월은 순교자의 소리 도서와 영상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해 배워보세요!



『마르크스와 사탄』
마르크스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공산주의의 영적인 뿌리가
사탄 숭배에 있음을
증명한 책

리처드 웹브란트 지음
10,000원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

공산주의에 대한 영적인 관점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공산국가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 다룬 보고서

총 4면 A4사이즈, 10부 1세트
10,000원



라오스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들의 목소리' Share Their Voice! 영상을
지금 바로 시청해 보세요!



라오스 기독교인
분찬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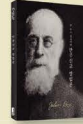
북한 사역의
이해를 돕는 책



「영웅의 여정」
10,000원



「믿음의 세대들」
10,000원



「만주선교 방법론」
10,000원



「온전한 헌신」 1, 2
각 10,000원

펍박받는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는
순교자의 소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1/출판 2/영어 번역 3/수감자 편지쓰기
4/월간소식지 패킹&라벨링 5/라디오 녹음

“가족과 함께 봉사에 참여하면서, 신앙 때문에 펍박 받는 형제자매를 돕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원봉사자 김00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자원 봉사를 하고 나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조00

순교자의 소리를 **초청하세요!**

어느 지역이든 찾아가 저희의 사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북한 사역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00 권사님, 최00 목사님-

“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00교회 성도님-



사역 소개 방문
왜 필요할까요?

+ 펍박받는 기독교인에 대해, 또 그들과 한 몸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70여개 펍박국가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동역하는
순교자의 소리 사역, 특히 북한 사역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기도모임, 소그룹, 성경공부모임, 개인별로도 가능!

💡 자원봉사 & 사역 소개 방문 신청 및 문의

▶ 참여신청 및 문의: 010-3151-2065 (화-토 9:00-5:00)

▶ 참여링크: vomkorea.com/get-involved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문의 02-265-0703 (화-토 9:00-5:00)

www.vomkorea.com/donation
후원계좌: 국민 463501-01-243303

도서 구매는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국민은행 463501-01-244988